

조조가 표절 작가였다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의의 이야기야. 이 이야기는 서촉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서촉의 지배자였던 유장은 한중의 장로가 서촉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어. 이때 유장의 모사 장송이 나서서 자신이 조조를 설득해서 장로의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말해. 장송은 키가 작고, 낮은 콧대에 빼드렁니를 자랑하는 추남으로 묘사 돼. 하지만 그의 비상함 만큼은 외모와 정반대였어. 장송이 나선 이유는 조조를 설득하는 것이 아닌, 서촉의 진정한 주인을 찾기 위함이었어. 장송은 유장이 서촉을 맡을 재목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조조를 평가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조조는 장송의 말투가 거만하자, 그의 외모와 말투를 엮어 불손하다며 그를 냉대한다. 하지만 우리 계략의 주인공 양수는 똑똑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알아본다고, 장송의 말솜씨에 흥미를 느껴. 그렇게 장송과 대화를 나누게 된 양수는 장송이 조조의 인물됨이 별거 없다고 평가하자, 조조가 직접 집필한 병법서인 「맹덕신서」를 보여주며 조조를 다시 봐줄 것을 권해. 그러나 장송은 이를 보더니, 이 책은 전국시대의 이름 없는 선비가 쓴 것이고, 조조는 이를 베낀 것 뿐이라고 말해. 서촉에서는 꼬맹이들도 이 병법서를 외우고 다닌다는 조롱은 덤으로 말이야. 양수가 그럴리가 없다고 말하자, 장송은 못 믿겠다며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책을 외워보겠다며 암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 놀란 양수는 장송에게 그대와 같은 선비가 익주에는 얼마나 있냐고 묻자, 장송은 나 정도의 인간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으며 촉에 유능한 사람이 많다는 이른바 블러핑을 해.

양수는 조조를 찾아가 장송의 재주가 뛰어나다며 그를 제대로 평가해주기를
권하는데, 역시나 입이 방정인 양수는 그 과정에서 맹덕신서의 이야기도 꺼내버려.
조조는 화가 나 맹덕신서를 전부 불태워버릴 것을 지시해. 장송이 조조를 농락하는
것은 이에 그치지 않는데, 조조가 장송을 불러 자신의 군사들을 구경시켜주는 일이
있었어. 이때 조조가 자신의 군세가 정말 대단하지 않냐며 장송에게 물어보는데,
장송은 역시 승상께서는 위엄이 높다고 조조를 띄워주더니, 조조가 여포와의
싸움에서 패배했던 일, 마초와의 전투에서 도망 가던 중 수염 긴 놈이 조조라는
마초군의 목소리에 수염을 잘랐던 일, 적벽대전에서 대패한 일, 화용도에서 관우에게
목숨을 구걸한 일 등을 읊어대며 역시 조승상의 위엄이 높다며 제대로 그를
비꼬아버려. 이에 화가 날대로 난 조조는 당장 장송을 죽여버리라고 명해. 다행히
양수가 최선을 다해 사자의 목숨을 뺏어서는 안된다고 커버쳐 준 덕분에, 장송은
불기짖을 실컷 얻어맞고 쫓겨나는걸로 끝나.

사실 이 맹덕신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조조가 ‘손자병법’에 주석을 달아 만든
‘위무제주 손자병법’이야. 이 책은 실제로 당대에 널리 통용된 책이고, 병법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들 읽어봤을 책이었어. 조조가 이름없는 선비의 책을 표절해서
맹덕신서라는 이름을 붙였다? 아무리 조조가 간웅이라지만 너무 심한 ‘억까’
아니었을까?